

‘만문명답’ (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2부 “미래를 열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 공개

- 규제, 진입장벽, 신산업을 둘러싼 갈등 놓고 열띤 토론해
- 시장경제와 기업·정부의 역할, 반기업정서와 해법에 대한 심층적 의견 나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대담 ‘만문명답 (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2부가 23일 정오에 유튜브 ‘이재명 TV’와 ‘텔레민주’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오늘 공개된 48분여의 영상에서 이재명 후보와 박용만 전 회장은 “미래를 열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라는 주제로 서비스업 고도화를 가로막는 규제, 신산업을 위한 진입장벽과 갈등, 시장경제와 기업·정부의 역할, 반기업정서와 해법 등에 대해서 심층적인 대담을 나눴다.

박용만 전 회장은 만문명답 2부의 첫 주제로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진 저성장 국면에 대한 대응책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화두로 대담을 풀어나갔다.

박 전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는데 전혀 풀리지 않는다. 정치적 경계심만 갖고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후보의 복안을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서비스업 고도화는 우리가 꼭 가야 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시장의 창의와 혁신,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고, 행정적 편의를 위한 규제는 최소화하자”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 불평등에 관한 문제, 국민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는 사회적 대화도 필요하고 보완 장치도 있어야겠지만 규제의 상당 부분은 관행, 옛날 산업시스템에 맞는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만 대대적으로 걷어내도 서비스업의 고도화는 상당 부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답했다.

■ 신산업의 진입장벽, 갈등 그리고 규제

박 전 회장은 “무분별한 난립이나 부적격자의 진입을 막는 한편 영세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진입장벽을 쳤지만, 그분들의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고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은 진입이 불가능해서 양쪽 다 발전적 변화를 막는 장벽이 되기 시작했다. 기득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 라며 후보의 생각을 물었다.

이 후보는 “사람이 몸이 크면 옷도 바꿔 입어야 한다. 규제 장벽, 진입장벽, 면허제도 등이 기득권을 지키고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 라며 동의했다.

이어 “결국 용기의 문제” 라며 “합리적 대안을 만들고 충분히 존중하고 설득하면 요구를 수용하면 거의 받아들인다. 우리 사회에서 논쟁 되는 기득권이나 진입장벽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대안도 만들면 대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복안을 밝혔다.

박 전 회장은 “경제가 새로운 미래로 나가려면 해묵은 질서를 파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특히 지도자의 용기가 꼭 필요하다” 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덧붙여 “그것이 리더를 뽑는 이유다. 산에 썩은 고목나무 있으면 나무가 못 자란다. 베어야 한다” 라면서 “넓은 관습, 넓은 제도, 쓸데없는 관행을 걷어내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고, 혁신이 가능하고,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라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그래서 권한도 권위도 부여한다. 그것을 맡아서 해야 할 집단이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다. 그런 것을 하라고 있는 것이다” 라며 “비난을 받더라도 비난을 감수하는 것이 책임” 이라고 화답했다.

■ 시장경제, 기업 그리고 정부

박 전 회장은 “과거에는 대기업의 확장 속도가 빠르니 대기업의 확장을 어느 정도 통제

하자는 노력을 많이 했다. 통제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커지는 일은 빈번하지 않아서 오늘날 생태계의 역동성이 떨어졌다. 폭발적 성장이 일어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왜 안 일어나는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라며 후보의 생각을 물었다.

이 후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기득권화되어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대기업 중심의 기득권화가 문제다. 불투명한 내부 질서, 특히 상속과정에서 생겨난 각종 편법 또는 부당한 내부거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가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너무 고질적인 문제라서 손대기도 힘들고, 교정하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이 따라서 제도 개혁도 쉽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에 박 전 회장은 “기업은 이윤과 성장을 추구한다. 대기업만의 잘못만은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 후보는 “대기업의 잘못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들의 경쟁의 환경을 만들고 제어하는 정치와 행정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측의 부족함”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은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고 해서 안 되고, 시장이 만능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면서 정부 개입의 요건, 조건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을 물었다.

이 후보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반해서 시장이 존재할 수도 없다”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개입하고 어느 정도까지 자율에 맡길 것인지 가치판단의 문제다. 시장은 효율과 경쟁과 창의를 촉진하는 장으로 유지해야 한다. 소위 경쟁과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 즉 시장의 실패가 예견되면 개입해서 경쟁과 효율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냐는 철학과 가치가 반영되지만, 시장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강자들이 일방적으로 전횡할 수 있는 것은 경쟁이 아니고 약탈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은 “행정이 소극적으로 나가면 법과 상관없이 일선 현장에서 다 사장된다”라고 말했고, 이 후보는 “결국 행정 관료조직을 지휘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역량과 태도,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 시장의 자율, 창의, 욕망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 반기업정서, 이념과 경제적 성향

박 전 회장은 대담의 마지막 주제로 우리 사회에 팽배한 반(反)기업 정서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물었다.

이 후보는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축이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이다. 기업이 없으면 시장과 경제가 없어진다” 라면서 “반기업정서는 아니고 반기업인 정서인 것 같다. 기업인, 기업의 행태에 대한 반감이 투영된 것 같다” 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재명은 반기업인” 이라는 프레임과 공격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친노동이면 반기업이냐” 라고 반문하면서 “친노동이 친기업이고 친경제이다. 이렇게 포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라고 답했다. 또 “기업 활동의 공간을 최대한 넓게 열어주고,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지하고 조정해주고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것들을 국가가 책임져주고 상응하는 책임도 요구해야 전체가 좋아지지 않겠나” 라고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박 전 회장은 “후보가 친기업적인 것은 누구보다 잘 안다” 라면서 후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제 출신이 소년 노동자고 인권변호사를 거쳐서 시민운동가, 야당의 기초단체장을 하면서 당시 집권세력과 심하게 충돌했다. 그러다 보니 좌파 이미지가 심해졌던 것 같다. 중복몰이도 많이 당했다” 라면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좋은 정치제도는 민주주의고 경제 시스템으로는 자본주의 시장 아니겠나.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인류문명도, 경제도, 인간의 삶도 개선되는 것이니 최적화되도록, 효율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역할” 이라고 답했다.

대답을 마치며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도 자주 경제자문 구하면 도와 달라”고 요청했고, 박용만 회장은 “은퇴해서 가진 것이 기억과 경험밖에 없다”며 “국가 지도자 후보로 나서신 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그런 궁금증에 답변하는 것이 당연한 소임”이라고 화답했습니다.